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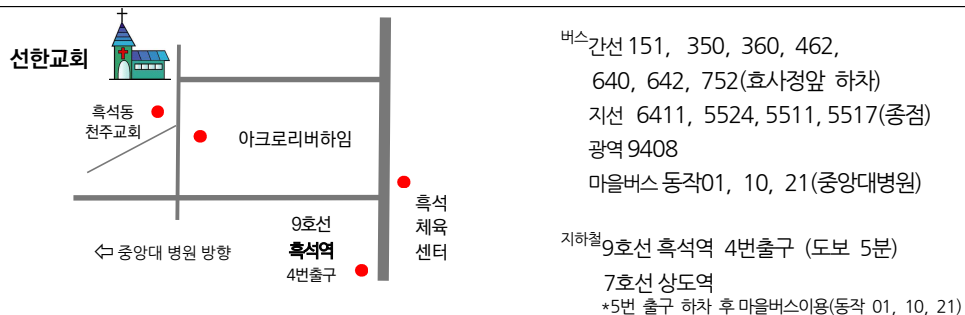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교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7-3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0장 (통일찬송가 40장)		
	교 독 문	교독문 3번 (시편 4편)		
	찬 양 과 경 배	500장 (통일찬송가 258장)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사도행전 20장 24절		
	설	교		선교사의 사명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허정미 김정원 김은정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김재준 집사		
	말	씀	[종말론 6강] (계20:11-21:7) 최후의 심판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롬8:1-17)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찬 식	오늘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2. 월삭새벽예배 및 총동원금요기도회	월삭예배 : 2월 3일(월) 새벽 6시 / 주관 : 운영위원회 총동원 금요기도회 : 2월 7일(금) 저녁 8시 30분
	3. 운영위원회 수련회	2월 8일(토) 오전 10시 30분 운영위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4. 부 서 사 역 조 정	오늘 2부 예배 후에 부서사역조정이 있습니다. 장소 : 안디옥실 참석대상 : 각부서 회장 및 주일학교 부장
	5. 기 부 금 영 수 증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떡 제 공	오늘은 이병삼, 류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2020년 성경강론 범위						
2/	2/3	2/4	2/5	2/6	2/7	2/8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 41장	예레미야 42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주님 없이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소서	
	한주간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소서	

찬송 :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통 415장)

본문 : 사사기 4:1

말씀 :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건망증입니다. 휴대폰을, 텔레비전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소지품을 자가용 시트 밑에서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건망증이 왔다'하고 쉽게 넘겨버리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잊혀진 기억의 소중함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큼니다. 치매나 기억상실증 같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 기억을 잊기도 하고 흐릿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일을 미약하게나마 기억하고 계시거나 감정적인 미온함이 생겨 기억하지 않으신다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기억하십니다. '죄'에 관한한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인간들이 그 죄의 대가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살아도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죄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기억대로 이를 활용하시지 않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십니다.

'또 행했다'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들이 지었던 모든 악한 것을 기억하시면서도 용서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 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또다시 죄짓고 사는 인간들의 죄악상을 에훗이라는 사사 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용서해주시니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용서를 아주 쉽게 여기고 적용을 합니다. 회개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나 회개했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쉽게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죄에 대한 가능성과 그 진행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좀 씻기는 것 같아 위로받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신앙생활이 쌓이면 신앙의 연륜도 쌓여 좀 알아주는 성도가 되는 듯 품도 잡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생활한 지 10년 차, 20년 차 되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은 많고 겪은 것은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것은 다 할 줄 압니다. 때 되면 절기 지키고 예배드리고 다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그들보다 하나님을 잘 알겠으며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액션을 더 잘 취할 수 있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하지 않습니까. 매해, 매시간 신앙의 연수가 차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고 교회를 다니며 기도를 잘하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할 수 있는 악한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를 기억해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연륜이 물거품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인식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나약한 인간임이 만천하에 드러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엎드리고 그럼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기억하시면서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선교사의 사명 (행20:24)

서 론

모든 성도들은 복음전파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론

1. 우리의 사명

(1)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마28:19,20 막16:15)

(2)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24절, 행9:15)

(3)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4:7,8)

(4)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

2. 교훈

(1) 내게 선교사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말자.

(2)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선교지이다.

(3) 그날에 주님께 받을 면류관을 사모하자.

결 론

선교사의 사명을 인식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박영근 장로
헌 금 위 원	허정미 김정원 김은정	허정미 김정원 김은정
오후예배 기도	김재준 집사	심인섭 집사

매일 성경 강독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기	날짜 : 2월 3일
찬양	나 어느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 / 통일 찬송가 466장)		
통독	예레미야 38장		
본문 내용	본장은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서 위기를 당한 예레미야가 그 위기에서 구출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본장은 진흙 구덩이 속에 빠진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인 전반부(1-13절)와 예루살렘 패망 직전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간의 마지막 대면을 진술하고 있는 후반부(14-28절)로 구성되어 있다. 에벳멜렉의 상소로 예레미야가 누출되었는데, 그 영향력과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에벳멜렉은 아마도 궁전의 환관이었던 것 같다. 또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와의 최후 면담을 통해 비록 바벨론에의 투항이 자신의 명예에 오명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전체적 파멸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어야만 했다.		
생각해보기			
1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 (1) 1-13절: 예레미야가 왕국 시위대 뜰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자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방백들의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 긴 끈을 만들어야 겨우 달을 수 있는 죽음의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게 됨. 진흙 구덩이에서 기아와 흑암으로 거의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예레미야가 구스 출신 환관 에벳멜렉의 필사 노력으로 진흙 구덩이에서 구출되어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됨 (2) 14-28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예레미야는 이전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대답함. 답변을 들은 시드기야는 방백들을 두려워하여 그와 나는 대화 내용을 숨겨줄 것을 예레미야에게 당부함 (3)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시드기야처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핵심 단어	12절. 에벳멜렉. 시드기야 왕의 환관으로 왕에게 호소하여 시드기야의 생명을 구해내었다. 그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았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보시는 주님, 보게 하시는 주님”
찬양과 기도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새 293/통 41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아내에게 들려온 남편의 대장암 4기 판정 소식은 한 가정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암 판정 소식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연이은 아내의 혈액암 4기 판정. 마치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이 이야기는 2019년 5월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려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믿음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쓰나미처럼 닥쳐온 고난 앞에서 이들 부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는 옴과 같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려고 발버둥 치는 그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좌절을 딛고 일어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전을 줍니다. 영화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고난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고통과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난당할 때일수록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9:1~12	
묵상포인트	예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당시 유대 사회의 관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 죄 때문이라고 쉽게 정죄해선 안 됩니다.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길 기뻐하십니다. 참된 신앙인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주목하신 사람은 누구인가요?(1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8절)	
적용하기	나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내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쉽게 그를 정죄했던 저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며, 항상 소망 가운데서 행하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애굽에 대한 예언		날짜 : 2월 7일	
찬양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 / 통일 찬송가 466)			
통독		예레미야 42장			
본문 내용		본장에서는 요하난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려 한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언급하고 있다. 요하난은 외적으로는 예레미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이미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동의만 강요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본장에는 유다 멸망 이전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심판 선언의 메시지가 다시금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본장은 요하난과 그 일행들의 예레미야에 대한 중보 기도의 요청(1-6절)과 하나님의 응답(7-22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남은백성들의 애굽이주 (1) 1-6절: 요하난과 유다 남은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하려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함 (2) 7-22절: (유대 남은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굽 이주 만류와 경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유대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전히 보호받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받아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을 경고함 (3) 자신의 뜻을 이미 정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핵심 단어		16절. 기근. 하나님이 내리시는 굶주림의 재앙 요하난 일행은 애굽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식량이 풍족한 곳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큰 불행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예루살렘이 함락됨	날짜 : 2월 4일
찬양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찬송가 501장 / 통일 찬송가 255)		
통독	예레미야 39장		
본문 내용	본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되었고, 시드기야 왕과 그 일족은 예언대로 비참한 처지를 당하게 되었고, 요인 중의 대부분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는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1-10절)와 예레미야의 석방 및 에벳멜렉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후반부(11-18절)로 구성되어 있다. 본장의 역사적 상황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B.C.586년이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 웅립된 시드기야는 자신을 진정한 유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바벨론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애굽, 암몬, 모압 등과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반박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것을 주장했던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과 소망을 약속받게 되었다.		
생각해보기			
1	예루살렘의 함락 (1) 1-18절: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와 시드기야 및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감. 이때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지만 반면에 예레미야는 석방됨.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애썼던 에벳멜렉은 구원 받으리라는 축복의 예언을 듣게 됨 (2) 주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핵심 단어	12절. 선대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의미하는데 본문은 예레미야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유다 총독이 된 그다라	날짜 : 2월 5일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		
통독	예레미야 40장		
본문 내용	본장은 자유의 몸이 된 예레미야와 유다 총독이 된 그다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의 와중에서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라마까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받은 느부사라단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어 유다로 되돌아온다. 그 후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유다 총독이 되어 친바벨론 정책과 경제 부흥 정책을 실시하였으므로 유다의 정세가 차츰 안정되어 가게 되었다. 그러나 다윗 왕가의 종친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사주와 인간적 능력으로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던 시대 착오적 발상 등으로 인해 총독 그다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이러한 본장은 석방된 예레미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6절)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라의 정책을 언급한 중반부(7-12절)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다라에 대한 음모를 묘사한 후반부(13-16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총독 그다라의 통치 (1) 1-6절: (1차석방이후) 예레미야가 다시 유대 백성들과 함께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라마에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 발견되어 석방되어 미스바 그다라에게로 가서 거함. (2) 7-16절: 그다라가 유대 총독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인근 나라로 도피했던 유대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그다라가 대외적으로는 친바벨론 정책을, 대내적으로는 경제 부흥 정책을 펴 파괴된 유다의 재건에 심혈을 기울임. 이때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불만을 품고 친 바벨론 정책을 펴는 그다라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하난이 고발했지만 그다라는 일축해버림 (3) 지도자로서 경솔한 판단은 치명적인 실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진심을 담은 바른 충고에 귀를 기울일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4)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 늘 경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매사를 판단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필요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핵심 단어	1절. 시위 대장. 시위 대장이란 호위병이나 근위병의 대장을 뜻하며 훈련과 판결과 지휘를 집행하는 왕의 대리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이스라엘의 반역	날짜 : 2월 6일
찬양	기별때나 슬플때나 (찬송가 418장)		
통독	예레미야 41장		
본문 내용	본장은 그다라의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즉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한 그다라가 만찬석상에서 이스마엘에게 살해되는 장면과 그 후 발생한 혼란 상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반역과 도주로 인해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상실한 채 포로 귀환 때까지 약 70년 동안 황무지 상태로 버려지고 말았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장은 그다라의 암살 사건과 이스마엘의 만행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1-10절)와 요하난의 의거가 기록되어 있는 후반부(11-18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장은 유다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배도가 그다라 암살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유다는 선지자의 메시지대로 언약 파기의 대가로 패망했으나, 언약을 진지하게 숙고하거나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여 인간적인 힘으로 유다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본장은 끊임없이 배도하는 죄인들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생각해보기			
1	이스마엘의 반란 (1) 1-3절: 그다라는 요하난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않고 가까이 했다가 만찬 석상에서 그의 추종자 및 바벨론 군사들과 함께 살해를 당함. 이로써 유다 재건의 희망은 무너지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0여년동안 황폐화된 채 버려지게 됨 (2) 4-15절: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비밀리에 살해하고 그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하던 중에 북왕국 지역으로부터 온 80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이 있던 곳으로 가려하자 자신들의 악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 그들 가운데 70명을 살해함. 10명은 뇌물을 주고 목숨을 보전받게 됨. 한편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과 당시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도피하려고 할 때 요하난이 그를 추격하여 포로로 끌려가던 유대 백성들을 구출하였고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은 암몬 자손의 땅으로 도피함 (3) 16-18절: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 바벨론이 재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한 까닭에)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미스바를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김함에 머무름 (4)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의해 최악에는 반드시 합당한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5)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으로 그를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한다.		
핵심 단어	5절. 수염을 깎고.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일은 애도와 고통의 표시이다. 본문에 나타난 팔십 명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미스바에 온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